

강원지역 D대학의 치면세마 실습 내원환자에 대한 스켈링 실태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조사

Investigation into the Scaling the Actual Condition of Patients at the Oral Prophylaxis Lab in D College in Gangwon Province and Their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홍민희*, 정미애**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과정*, 동우대학 치위생과**

Min-Hee Hong(mini8265@hanmail.net)*, Mi-Ae Jeong(comet810@hanmail.net)**

요약

강원지역 D 대학 치위생과 2, 3학년 학생들의 치면세마 실습시간에 내원한 환자중 20대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스켈링 만족도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이 스켈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스켈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2%로 그렇지 않은 학생 38.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스켈링을 받은 장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스켈링을 치과에서 받은 학생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4.4%로 여학생 11.8%보다 스켈링을 학교에서 많이 받았고, 여학생은 88.2%로 남학생 65.6%보다 치과에서 많이 받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79$, $p<.01$).
2. 스켈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남학생이 38.7%로 여학생 26.5%보다 “잘 모르겠다”에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여학생은 57.4%로 남학생 55.9%보다 스켈링을 받을 당시 아프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38$, $p<.05$).
3.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72.2%로,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중심어 : | 구강건강 | 구강위생용품 | 스켈링 | 치면세마 실습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atisfaction level of patients with oral health care provided by a dental hospital, especially scaling, and their oral health behavior.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63 college students who were in their 20s and selected from among patients who visited D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 Gangwon Province during the oral prophylaxis practice of dental hygiene sophomores and junior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ether the selected students had ever had their teeth scaled was checked, and those who had outnumbered the others who hadn't. The rates of the former and latter respectively stood at 61.2 percent and 38.8 percent. Regarding places where they got their teeth scaled,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that represented 75.2 percent did that at dental clinics. By gender, 34.4 percent of the male students did that at schools, which were larger than 11.8 percent of the female students who did. 88.2 percent of the female students did that at dental clinics, which were larger than 65.5 percent of the male students who did. Gender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at($\chi^2=10.79$, $p<.01$).
2. As for satisfaction level with scaling by gender, the male students (38.7%) who had no specific idea outnumbered the female students (26.5%) who did. The female students(57.4%) who felt no pain during scaling outnumbered the male students(55.9%) who did. Gender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ir responses.($\chi^2=6.38$, $p<.05$).
3. Concerning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most of the students who represented 72.2 percent had never flossed their teeth, and as many as 86.3 percent had never used a tongue cleaner. But the gaps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keyword : | Oral Health | Oral Hygiene Supplies | Scaling | Oral Prophylaxis Practice |

I. 서론

치위생과 대학교육은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이다. 치과위생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전문 구강보건교육자이며 임상가로 치과 의사와 공동치료자로서 최적의 구강보건을 달성·유지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보조하며 구강질환 관리를 위해 예방적, 교육적, 치료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1].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에서 “치석제거 및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등 치아와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업무에 종사 한다”라고 되어 있다[2].

치과위생사 교육은 3년 또는 4년간의 교육과정에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및 전공관련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과 구강진료기관에서의 임상실습으로 구성 되어 있다[4].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습득한 내용을 실제 환자 및 진료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 졸업 후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5]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므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이미 배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케 해 주며, 관찰력과 판단력은 물론 대인관계의 이해와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 교육은 지식의 실제 적용 없이는 의미가 없으므로, 임상경험이 전문직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치면세마 실습시간에 내원한 환자들 중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스켈링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면세마 실습에 관한 교육방향의 설정에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D대학 2, 3학년 치위생과 학생들의 치면세마 실습시간에 내원한 환자들 중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련 스켈링 경험 여부와 스켈링에 대한 인식, 만족도,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 1) 스켈링의 경험 유무, 스켈링을 받은 횟수 와 스켈링을 받는 주기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치면세마 실습 내원환자의 스켈링의 제의 받았을 시, 스켈링을 받을 시, 받고난 후의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하고자한다.
- 3) 실습내원환자들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9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지역에 소재한 D대학 치위생과 2, 3학년을 대상으로 치면세마 실습 방문 환자 중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270부를 배부하여 조사자가 직접 설명한 후 작성하게 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6부를 제외한 총 263부를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학생들의 스켈링 실태와 잇솔질 실태, 그리고 구강용품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빈도 분석, 그리고 t-test(검증)를 실시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목적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9	60.5
	여	104	39.5
계	263	100.0	

실태조사에 참여한 성별로는 총 263명 중 남학생이 60.5%, 여학생 39.5%의 비율을 나타냈다.

2. 스켈링 실태

2.1 스켈링 경험

(1) 스켈링 경험 여부

치면세마 내원환자들이 스켈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스켈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2%로 그렇지 않은 학생 38.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65.4%로 남학생 58.5%보다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2. 스켈링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df)	p	
성별	남	93	66	159	1.26 (1)	0.262
	여	68	36	104		
계	161	102	263			

(2) 스켈링 경험 횟수

학생들이 스켈링을 경험한 횟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스켈링을 1회 한 학생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회 21.7%, 3회 14.9%, 4회 이상 10.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3.8%로 여학생 51.5%보다 스켈링을 1회 하였고, 여학생은 13.2%로 남학생 8.6%보다 4회 이상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스켈링 경험 횟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χ^2 (df)	p	
성별	남	50	21	14	8	93	0.91 (3)	0.82
	여	35	14	10	9	68		
계	85	35	24	17	161			

(3) 스켈링 받은 장소

학생들이 스켈링을 받은 장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스켈링을 치과에서 받은 학생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교에서 받은 학생은 24.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4.4%로 여학생 11.8%보다 스켈링을 학교에서 많이 받았고, 여학생은 88.2%로 남학생 65.6%보다 치과에서 많이 받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79, p<.01$).

표 4. 스켈링 받은 장소

구분	치과	학교	계	χ^2 (df)	p	
성별	남	61	32	93	10.79** (1)	0.001
	여	60	8	68		
계	121	40	161			

** p<.01

2.2 스켈링 주기

학생들은 스켈링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스켈링을 6개월에 한번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에 한번 42.6%, 2~3년에 한번 8.7%, 4~5년에 한번 3.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0%로 여학생 1.0%보다 스켈링을 4~5년에 한번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학생은 48.1%로 남학생 43.4%보다 6개월에 한번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 스켈링 주기

구분	6개월 한번	1년 한번	2~3 년에 한번	4~5 년에 한번	계	χ^2 (df)	p
성별	남 (43.4)	68 (42.8)	14 (8.8)	8 (5.0)	159 (60.5)	3.3 5 (3)	0.34 0
	여 (48.1)	44 (42.3)	9 (8.7)	1 (1.0)	104 (39.5)		
계	119 (45.2)	112 (42.6)	23 (8.7)	9 (3.4)	263 (100.0)		

2.3 치위생과 학생에게 제의 받았을 시 느낌

치위생과 학생에게 스켈링 제의를 받았을 때 학생들의 느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20으로, 학생들은 치위생과 학생에게 스켈링 제의를 받았을 때 느낌이 좋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4.25로 남학생 4.16보다 치위생과 학생에게 스켈링 제의를 받았을 때 느낌이 좋았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치위생과 학생에게 제의 받았을 시 느낌

구분	N	Mean	SD	t	p
성별	남 93	4.16	0.86	-0.64	0.525
	여 68	4.25	0.89		
전체	161	4.20	0.87		

2.4 스켈링 받을 당시 느낌

스켈링을 받을 당시 학생들의 느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스켈링을 받을 당시 아프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6.5%, 아팠다고 인식하는 학생 9.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에 33.5%가 응답하였다.

표 7. 스켈링 받을 당시 느낌

구분	아프지 않았다	잘모르 겠다	아팠다	계	χ^2 (df)	p
성별	남 (55.9)	36 (38.7)	5 (5.4)	93 (57.8)	6.38*	0.04
	여 (57.4)	18 (26.5)	11 (16.2)	68 (42.2)		
계	91 (56.5)	54 (33.5)	16 (9.9)	161 (100.0)		

* p<0.05

성별로는 남학생이 38.7%로 여학생 26.5%보다 잘 모르겠다에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여학생은 57.4%로 남학생 55.9%보다 스켈링을 받을 당시 아프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38, p<.05$).

2.5 스켈링 받은 후의 만족도

스켈링을 받은 후에 학생들의 느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8]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44로, 학생들은 스켈링을 받은 후에 좋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스켈링 받은 후의 만족도

구분	N	Mean	SD	t	p
성별	남 93	4.40	0.69	-0.93	0.354
	여 68	4.50	0.68		
전체	161	4.44	0.69		

성별로는 여학생이 4.50으로 남학생 4.40보다 스켈링을 받은 후에 좋았다고 인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6 치위생과 학생의 스켈링

치위생과 학생에게 스켈링을 받은 후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9]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에게 스켈링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남에게 추천하겠다는 학생이 6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 35.4%, 다시 하고 싶지 않다 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치위생과

구분	적극적으 로 남에게 추천한다	정기적으 로 방문하 겠다	다시 하고 싶 지 않다	계	χ^2 (df)	p
성별	남 (63.4)	33 (35.5)	1 (1.1)	93 (57.8)	0.74 (2)	0.690
	여 (64.7)	24 (35.3)	-	68 (42.2)		
계	103 (64.0)	57 (35.4)	1 (0.6)	161 (100.0)		

성별로는 여학생이 64.7%로 남학생 63.4%보다 치위생과 학생에게 스켈링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남에게 추천할 의향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3.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3.1 치과위생사·치과의사로부터 잇솔질 방법 교육 경험

학생들이 잇솔질 하는 방법을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0]와 같이 잇솔질 하는 방법을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53.5%로 그렇지 않은 학생 46.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치과위생사/치과의사로부터 잇솔질 방법 교육 경험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성별	남 (54.7)	72 (45.3)	159 (60.5)	0.36 (1)	0.551
	여 (51.0)	51 (49.0)	104 (39.5)		
계	140 (53.2)	123 (46.8)	263 (100.0)		

성별로는 남학생이 54.7%로 여학생 51.0%보다 잇솔질 하는 방법을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2 치실 사용

(1) 치실 사용 경험

학생들이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이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72.2%로,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 27.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8.8%, 남학생 27.0%로 여학생이 치실을 더 많이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교육경험별로는 잇솔질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38.6%로 그렇지 않은 학생 15.4%로 잇솔질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46$, $p<.001$).

표 11. 치실 사용 경험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df)	p
성별	남 (27.0)	116 (73.0)	159 (60.5)	0.10 (1)	0.750
	여 (28.8)	74 (71.2)	104 (39.5)		
잇솔질 교육경험	있다 (38.6)	86 (61.4)	140 (53.2)	17.46*** (1)	0.000
	없다 (15.4)	104 (84.6)	123 (46.8)		
계	73 (27.8)	190 (72.2)	263 (100.0)		

*** p<.001

(2) 치실 사용 주기

학생들이 치실을 사용하는 주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치실 사용 주기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하루에 한번	10	13.7
일주일에 한번	8	11.0
필요할때마다	55	75.3
계	73	100.0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실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학생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하루에 한번 13.7%, 일주일에 한번 11.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실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혀 세척기 사용 경험

학생들이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7%로 비교적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혀 세척기 사용 경험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df)	p
성별	남 17 (10.7)	142 (89.3)	159 (60.5)	3.06 (1)	0.080
	여 19 (18.3)	85 (81.7)	104 (39.5)		
계	36 (13.7)	227 (86.3)	263 (100.0)		

성별로는 여학생이 18.3%로 남학생 10.7%보다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V. 고찰 및 결론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서 그들이 활동 현장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강보건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배우고 이론 교육을 보충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터득하여야 한다[7].

임상실습은 모든 교과목의 통합체로서 학생이 습득한 지식을 보강 통합하여 지식, 기술 태도면에 행위변화를 줌으로서 후일 정규 치과위생사로 근무할 때 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다[8].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은 치위생과 학생이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인식하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9], 치과위생사는 이론으로 얻은 지식을 임상실습을 통하여 비로소 올바른 환자관리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치면세마 실습 시간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련 스켈링 실태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실습교육 수준을 확인하며, 임상교육의 방향설정과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실시되었다.

윤[10]의 연구에서는 스켈링을 받은 경험이 없는데

72.4%로 많은 차이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 스켈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2%로 스켈링을 받지 않은 학생 38.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켈링의 경험이 많다고 나온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권유로 인하여 스켈링 경험 및 교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11]의 연구에서는 스켈링 주기는 1년이 30.5%,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6개월이 23.4%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켈링 주기 조사 결과 6개월에 한번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에 한번 42.6%, 2~3년에 한번 8.7%, 4~5년에 한번 3.4% 순으로 나타났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영향으로 인해 스켈링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교육의 효과로 스켈링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이[11]의 연구에서 잇솔질 이후에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 중 치실사용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치간칫솔 20.9%, 전동칫솔 8.6%, 혀세척기 7.5%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72.2%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28.8%로 치실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잇솔질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46, p<.001$).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대학생이라 치간칫솔의 사용의 필요성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치면세마 실습시간에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및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을 환자들에게 교육 시키고, 잇솔질 후 치실 사용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양[12]은 임상실습 내용, 임상실습 평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하였다.

Young[13]등은 교과과정 중 치위생실습 효과로서 실

습교육 전과 후의 학생 지식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며, Despain[14] 등은 22명의 치위생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적인 기술에 대한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정확한 임상적 기술의 자기평가는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강원지역 D 대학 치위생과 2,3학년 학생들의 치면세마 실습시간에 내원한 환자 중 20대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련 스킨링 만족도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학생들이 스킨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스킨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2%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이 스킨링을 받은 장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스킨링을 치과에서 받은 학생이 7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4.4%, 여학생 11.8%로의 결과로 스킨링을 학교에서 많이 받았고, 여학생은 88.2%, 남학생 65.6%가 치과에서 많이 받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79$, $p<.01$).
2. 스킨링을 받을 당시 학생들의 느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킨링을 받을 당시 아프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56.5%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8.7%로의 결과로 “잘 모르겠다”에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여학생은 57.4%가 스킨링을 받을 당시 아프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38$, $p<.05$).
3.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72.2%로 나타났다. 잇솔질 교육경험별로는 잇솔질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38.6%로 치실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46$, $p<.001$).

혀세척기 사용 경험 조사결과 혀 세척기를 사용한 경

험이 없는 학생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7%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원지역의 제한된 지역을 선택하였으며, 연구대상이 20대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치위생과 치면세마 실습시간의 내원환자의 구강건강관련 스킨링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에 까지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치위생과 임상교육의 방향설정과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질 것이다.

참고 문헌

- [1] E. Wilkins, "Clinical practice of the Dental Hygienist," 6th ed. Philadelphia: Lea & Febiger, pp.253-264, 1989.
- [2] 김성훈, 의료기사등 의료관계법규, 2000.
- [3] 정재연, 최정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교육 및 직업관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13권, 제1호, 2000.
- [4] 이영애, 김연선,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정도와 수행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 학회, 제4호, pp.353-359, 2008.
- [5] G. S. Oh, "Process of the nursing education in clinic," The Korean Nurse, Vol.13, No.6 pp.47-51, 1974.
- [6] 심형순,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실태 조사", 구강생물학연구, 제27권, 제2호, 2003.
- [7] 박정란,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과 임상 실습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1991.
- [8] 이상태, 임상실습지침서, 조판, 서울, 청구문화사, 1996.
- [9] 이숙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pp.41-51, 1980.

- [10] 윤정안, “서울 경기 지역 주민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대한 조사 연구”, 치의학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1989.
- [11] 이정희, “구강보건 인식과 실천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7.
- [12] 양정승, “치위생과 학생의 지역사회 구강진료기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24권, 제3호, 2000.
- [13] L. J. Young and T. M. Speidel, “The effect of a continuing education course on dental hygiene practice,” J Dent Edu, Vol.46, No.4, 212, 1982.
- [14] F. John and J. R. Simon, “Integrated Clinical education for dental hygiene and dental students,” J Dent Edu, 83, 1970.

정 미 애(Mi-Ae Jeong)

종신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졸업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졸업
- 1998년 3월 ~ 현재 : 동우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 보건 콘텐츠, 보건교육연구, 예방치과학, 노인요양복지학

저자 소개

홍 민 희(Min-Hee Hong)

정회원



- 2006년 2월 :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사 졸업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수료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2007년 2월 ~ 현재 : 큰나무의료생협 부속치과병원 소문난치과 재직 중

<관심분야> : 보건 콘텐츠, 예방치과학, 생명공학, 미생물학, 노인보건학